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⑥

“젊어진 새 찬불가, 유튜브로 들어요”

찬불가 그룹 별빛사리 팀

불교크리에이터 1기로 선정된 찬불가 앙상블 그룹 별빛사리는 PBM이라는 대중불교 음악을 보급하고 있는 이들의 모임이다. 이들을 만나 새로운 대중불교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찬불가 앙상블 그룹 ‘별빛사리’의 공연 모습. PBM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박정환 씨를 중심으로 각 분야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Q: PBM이라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기존 대중불교 음악과 차이점은 머죠?

박정환 씨 : PBM이란 대중불교음악 ‘Popular Buddhist Music’의 줄임말로 2018년 4월 21일 동국대서 첫 PBM 장르로 음악회가 열리며 시작됐어요. PBM은 말그대로 대중들에게 불교음악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라드, R&B, 트로트 풍으로 다룹니다. 랩 찬불가도 하나의 PBM이죠.

Q: 불교 포교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우주 씨 : 가장 먼저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서정주 씨 : ‘친구따라 교회갔다가 멋진 교회 오빠를 보고반해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웃음) 누가 포교를하느냐에 따라 어떤 새로운 신도가 오는지도 달라지겠지요.

요즘 불교란, 산 속에 있는 절,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 등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요. 타종교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기에 새 젊은 이미지를 주는게 중요하죠.

송승현 씨 : 일단은 접해봐야 호불호가 생길텐데, 불교를 한번이라도 접해볼 마음을 갖기 어렵죠. 젊은 세대층이 쉽게 접하는 컨텐츠들이 생겨나야 해요.

Q: 별빛사리가 유튜브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먼가요?

송우주 씨 : 유투브, SNS에 꾸준히 올려보자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던 중 우연히 기회를 얻었어요.

서정민 씨 : 보살님들의 합창 음원 말고는 현대화 된 찬불가는 드물었어요. 저희는 ‘멋지게’ 노래 할 수 있고 보살님들이 노래하실 때 ‘가이드’ 역할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멋진 PBM이 저희를 통해 보급되고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승현 씨 : 음악을 전공하는 불자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아쉬우던 찰나 선불남성합창단을 통해 불자성악가인 정환이 형을 알게 됐어요. 형이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도 형과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Q: 불교 크리에이터로 선정된 느낌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환 씨 :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유투브 채널 ‘play박정환’ 또는 ‘별빛사리’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나오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향후 ‘미스틱스토리’라는 채널을 벤치마킹하여 청년들의 찬불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됐으면 해요. 저번 인터뷰에서 불교크리에이터 정태호PD님께서 함께 작업하기를 요청하셨는데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노덕현 기자

2019문화재지킴이 한마당 성료

11월 2일 중앙청소년수련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와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종재 지홍)가 주관하는 ‘2019년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이 11월 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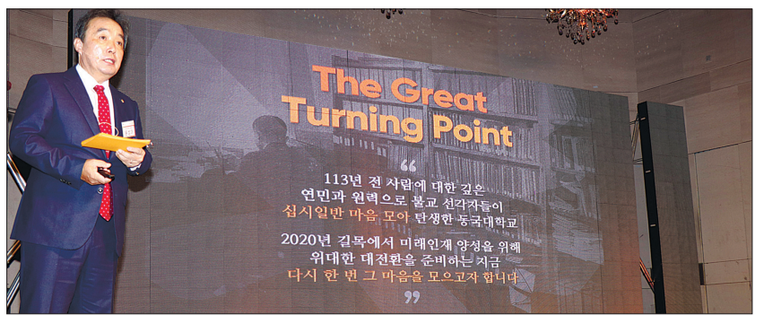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는 청소년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청소년 특화활동이다. 올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는 74개 학교 26개 민간단체에서 2만 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 행사는 전국의 청소년이 모여 한 해의 문화재보호 활동 성과 공유와 상호교류를 위해 전국행사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번째다. 올해 행사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를 대표해 학교 · 민간단체 등 28개팀 총 225명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부, 동국 발전 원동력”

동국대, 5일 ‘에너자이즈 동국 후원의 밤’ 개최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동국대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국대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5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Energize Dongguk(에너자이즈 동국)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윤성이 총장, 前 총장 보광 스님, 박대신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 동국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 성타 · 법타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동국을 아끼는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아준다면 명문민족사학 동국, 글로벌대학 동국으로 반드시 도약할 수 있다”고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동국의 발전은 곧 불교의 발전이며, 동국의 미래는 곧 불교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행 스님은 조계종의 동국대 발전기금 30억원 약정해 눈길을 끌었다.

윤성이 총장은 직접 학교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사부대중의 후원을 독려했다. 이날 윤 총장은 2022년까지 동국대를 국내 10위 대학, 10개 학과를 세계 100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교육 · 연구 · 인프라 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불자, 동문들의 기부금은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년불자 스마트폰 중독 예방 시작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11월 2일 Cycle R · E · S · E · T운동 펼쳐



인사동 광장에서 불자청년들이 스마트-쉼 운동 동참을 알리며 활짝 웃고 있다.

불교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는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이사장 이기흥)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쉼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사회평화協과 중앙신도회는 11월 2일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용 선물을 전달하는 등 스마트쉼 캠페인 ‘Cycle R · E · S · E · T운동’을 펼쳤다.

이번 스마트쉼 캠페인은 조계종 포교원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 진행하는 2019 청년대학생 신행축제와 더불어 불자청년들을 대상으로 답게살기 캠페인 동참 서명운동과 연계해 진행됐다.

스마트쉼 캠페인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청년불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인사동 거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최근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어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스마트쉼’을 주제로 한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강연이 진행됐다.

가섭 스님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삶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 · 대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이였지만 휴대폰도, 나 자신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섭 스님은 디지털 과의존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재 불교계는 스마트쉼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을 축으로 스마트쉼 전문강사를 배출하고 중독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약 60여 명이 과의존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 바 있다.

또 ‘스마트쉼 사찰’ 선정과 기도 법회 등의 스마트폰 사용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대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많은 신도 불자들의 삶에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다. 특히 청년불자들과 스마트폰은 뗄수 없는 관계”라며 “많은 부분을 활용하지만 이에 너무 빠져드는 중독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 신곡맞이 법회 11월 6일 봉행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1월 6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신곡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신곡맞이 법회는 한 해 결실을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법회다.

이날 법회서는 전화를 통해 불자들에게 1분 법문을 전한 홍파 스님이 그동안의 법문 원고를 모은 책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를 봉정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홍파 스님은 ‘아침해우소’라는 이름으로 2017년 3월부터 1분 법문을 해왔다. 신곡맞이 법회에는 가수 조영남 씨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법회 후 축하연에서는 홍파 스님은 대중들에게 ‘오유지족’이라는 문구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는 격려도 남겼다.

노덕현 기자



